

## 朝鮮漢字音의 成立과 變遷\*

정 광  
(고려대학교)

### 1. 緒論

중국 주변의 諸民族, 특히 膠着的 문법구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民族들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제정하여 자신의 언어를 표기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로서 그 이전에는 중국의 漢族이 개발하여 사용한 漢字를 빌려 중요한 일을 기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으로서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기록된 이전부터 中國과의 교류가 빈번하였고 그를 통하여 한자가 유입되었다. 즉 중국으로부터 流民이 이주하거나 아니면 중국인 가운데 어떤 세력이 韓半島를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중국의 漢文, 즉 중국어와 漢字로 이 지역의 제반 사실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중국인으로서 이 지역에 정착한 歸化人들로부터, 아니면 이 지역을 지배하

---

【Keywords】 Chines writing, Chines characters, Sino-Korean Pronunciation, Eastern Pronunciation(東音), nativization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25일 일본 早稻田大學 大隈講堂에서 열린 日本 中國語學會 全國學術大會에서 일본어로 발표한 것이다. 이 학회에서는 “漢字音研究の現在”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가졌는데 필자는 거기에서 “朝鮮漢字音의 成立と變遷”이란 제목으로 主題講演을 한 것이다(拙稿:2003b). 함께 주제발표를 했던 沼本克明氏의 논의를 참조하고 아울러 일본의 원로학자인 平山久雄 先生の 질문과 조언을 받아 드려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원래 일본어로 작성한 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한자를 많이 노출하였다.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AL2002)

던 중국인 정복자로부터 한문을 학습하여 사용한 韓半島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도 漢文과 漢字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그 文語와 文字가 당시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문과 원주민의 言語는 문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가 달랐으며 이들은 한동안 言文二致의 문자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韓半島에서도 이와 같은 문자생활은 천여 년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쳐 한문표기가 이어지다 보니 이 지역에서 한문과 한자는 마치 自國의 文字로 의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중국어 문법에 근거한 漢文의 構造도 적지 않게 변화되었다. 특히 漢字의 發音은 당초에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때의 것과 매우 다르게 변화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의 土着語와 당시 중국어의 음운이 서로 달랐으며 비록 중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오랜 세월 이 곳에서 사용된 한자음은 이곳 토착어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그 발음이 많이 변질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미 변질된 漢字音은 역시 한국어의 역사적 음운변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정착되어 역사적으로 한국어의 음운변화 더불어 변천해 온 한자음을 韓國 漢字音(Sino-Korean Pronunciation), 또는 東音(Eastern Pronunciation)이라 한다. 한국 한자음은 東國正韻式 한자음을 포함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東音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이 東音은 오늘날의 중국어, 즉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인 보통화의 發音과는 물론 다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 어떤 방언의 漢字音을 받아들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 즉 東音의 淵源을 살피는 연구는 아직 뚜렷한 定說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몇 가지 可能性이 提案되었을 뿐이다. 그 가운데 그래도 信憑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東音의 成立에 대한 假說은 6~7세기경 北方 中原音의 流入說(Kalgren)과 6~7세기의 長安音 根拠說(河野六郎), 그리고 10세기 宋代 開封音說(有坂秀世)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한문과 한자의 受容 과정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한국한자음, 즉 東音의 성립과 그 역사적 변천을 『鷄林類事』, 『訓蒙字會』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漢字를 수입하여 白國의 언어를 표기하는 文字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韓半島의 先住民들이 中國人과 접촉하여 그들의 文化를 受容할 때에 文字도 함께 들어온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漢字受容에 대하여는 拙稿(2003a)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韓半島에서 中國人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漢字의 受容은 멀리 古朝鮮의<sup>1)</sup> 衛滿朝鮮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물론 箕子朝鮮의<sup>2)</sup> 支配層도 中國人이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箕子東來說을<sup>3)</sup> 부인하는 學者도 있기 때문에 이를 論外로 하더라도 그의 뒤를 이은 衛滿朝鮮의 支配層은 분명히 中國人으로 보인다. 즉, 中國에서 秦이 망하고 漢이 일어나자 옛 燕나라 盧綰의 부하 衛滿이 流民 1000여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와서 箕子朝鮮의 準王을 逐出하고 세운 것이 衛滿朝鮮이라 하며 이 나라는 3대 右渠王 때에 漢武帝 3년(108 B.C.)에 漢의 侵入을 받아 멸망하기까지 80여 년간 계속되었다고 한다(『史記』 『魏志 東夷傳』 및 『三國遺事』 권1 衛滿朝鮮). 衛滿朝鮮의 성립은 대체로 3세기 경으로 본다.<sup>4)</sup>

- 
- 1) 韓國史에서 古朝鮮이라고 하면 一般的으로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을 말한다.
  - 2) 韓半島에서의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술한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의한 것이지만 중국의 여러 古代史書나 『삼국유사』에서는 古朝鮮의 존재를 기록하였다. 古朝鮮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왕조가 교체되었다. 먼저 기원 전 24세기(2333 B. C.) 경에 檀君王儉에 의하여 시작된 檀君朝鮮이 있고 이어서 기원전 12세기(1122 B. C.) 경에 箕子朝鮮이 뒤를 이었으며 기원전 2세기(194 B. C.) 경에 衛滿朝鮮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 사서에서도 확인된다.
  - 3) 『三國遺事』(권1) 『紀異』(제2) ‘古朝鮮’조에 의하면 周 武王이 卽位하여 箕子를 朝鮮의 王으로 封하였으며 檀君은 阿斯達에 돌아와 山神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箕子が 檀君王朝를 滅하고 箕子朝鮮을 세운 다음 周 武王의 認定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4) Ledyard(1966/22-23)의 “During the third centuries B. C., the great Chinese migrations,

따라서 衛滿朝鮮의 지배층은 중국 燕나라 流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이들은 중국어, 즉 漢文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衛滿朝鮮의 피지배층은 韓半島의 원주민들로서 膠着的 문법구조를 가진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언어는 古代 한국어의 母胎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 한반도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가 서로 달랐으며 지배층의 영향으로 庶民들도 한자를 접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런 현상은 漢四郡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sup>5)</sup>

前漢의 武帝가 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영토에 樂浪·真番·臨屯·玄免의 4 郡縣을 설치하여 한반도를 통치한 漢四郡 시대(108 BC. - 313 AD.)에는 지배층이 漢에서 파견된 官吏들이었으므로 중국어와 한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렇게 중국어와 함께 한반도에 유입된 漢文은 수세기에 걸쳐 지배층의 文語이었고 漢字는 統治文字로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漢文과 漢字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쓰이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한반도에 건국된 모든 고대국가에서 漢字는 統治文字<sup>6)</sup>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우리 先祖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中國으로

---

occasioned by the civil wars then disturbing China, brought into the peninsula from the states of northern China not only large numbers of commoners, but also members of the ruling classes of those states and their literate secretaries. One such group led by Wei Man(衛滿) of Yen, took over the primitive Korean state of Ch'ao-hsien, then existing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slightly beyond into Manchuria.” 참조

- 5) 박병채(1956)에서는 漢字의 韓半島 유입을 5時期로 나누어 衛滿朝鮮 以後 漢四郡 設置까지의 시기를 제1기라 하여 ‘漢文化의 接觸과 漢文의 流入期’로 보았다. 제2기는·제1기 末로부터 漢四郡이 高句麗에 滅亡할 때까지를 말하며 ‘漢文化의 模倣과 受容期’으로 명명하였다. 제3기는 漢四郡의 滅亡으로부터 삼국이 鼎立하던 시기를 말하며 ‘漢文化의 整備과 漢文의 普及期’로 보았다. 제4기는 統一新羅 時代를 말하며 ‘漢文化에 대한 自主意識의 發現과 漢文의 定着期’라고 하였고 제5기는 高麗時代를 말하는데 ‘漢文化의 心醉와 漢語의 國語化’가 된 시기라고 하여 이 時代에 漢字가 우리말에서 터전을 잡게된 것이라고 보았다.
- 6) 統治文字란 어떤 言語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自生的으로 開發한 表記手段이 아니라 주로 侵略者들이 被支配族의 言語를 기록하기 위하여 도입한 다른 言語의 文字를 말한다. 異民族의 支配者들이 統治 수단으로 使用하는 文字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支配族의 言語로 번역하여 그 文字로 기록하지만

부터 전래된 한자를 접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국가인 夫餘와 三韓에서는 많은 人名과 地名, 官職名이 漢字로 전사되어 고대시대의 内外 史籍에 전해지며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도 國初부터 漢文으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또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高句麗와 百濟, 新羅에서는 自國의 역사를 찬술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 때에 漢文으로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은 당시의 우리말을 中國語로 번역하여 漢字로 기록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三國時代의 高句麗, 百濟, 新羅는 많은 학교를 설치하고 漢文을 교육하였으며 그 교재로 儒敎의 經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拙著:1990).

### 3. 東音의 成立

오래 전부터 韓半島에 유입된 漢字는 字形과 더불어 流入될 當時의 中國語 發音을 갖고 들어왔으나 그 發音은 국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우리말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변질되어 정착되었음을 緒論에서 언급하였다. 이렇게 정착된 漢字音을 朝鮮漢字音, 또는 東音이라고 불려왔는데 漢字의 이 發音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주는 연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없다. 東音의 正體를 밝히기 위하여 漢字가 어느 시대의 어떤 中國語의 發音을 基盤으로 하여 形成되었는가가 고찰되어야 한다.7)

그러나 모든 漢字가 하나의 中國語 發音을 갖고 일시에 유입되었다고 보

---

그 民族의 固有한 人名이나 地名, 官名 등 統治를 위한 고유명사의 表記에서는 그 言語를 그대로 表記하지 않을 수 없다. 人名과 地名의 表記는 軍役이나 稅金을 徵收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官名의 表記는 百姓들에게 權威와 服從을 얻기 위한 것으로 組織社會의 位階秩序를 官職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류 最古의 文字인 스메르(Sumer)文字도 統治文字였다.

- 7) 박병채(1973/412)에서는 韓國 漢字音이 언제 中國에서 들어왔는가를 고찰하려면 먼저 정치적 문화적인 역사 배경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韓國漢字音이 정착한 시기를 高句麗 美川王 14년(314)부터 新羅가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 8년(668)까지 약 4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기는 어렵다. 中國語의 여러 방언에서 發音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시대적으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三國時代의 漢字音은 단일한 東音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中國에서 사용하던 譬況, 讀若, 直音 등의 방법으로 表意文字인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였으며 후일에는 反切法을 사용하였다.<sup>8)</sup> 西曆紀元을 前後한 시기에 삼국에서 사용한 한자표기에는 같은 말을 여러 한자로 표음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中國에서 사용한 위의 漢字音 표음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권13) 高句麗 본기 제1에 “始祖東明聖王姓高氏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衆解”는 기사에 의하면 ‘朱蒙’의 ‘朱’는 그 發音이 ‘鄒, 衆’과 같고 ‘蒙’은 ‘牟, 解’와 비슷함을 類推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날의 漢字音과 이 시대의 漢字音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朱=鄒=衆’과 ‘蒙=牟=解’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朝鮮漢字音, 東音은 오랜 세월을 거쳐 獨自的으로 形成된 것으로 草創期에는 하나의 漢字에 대하여 여러 가지 發音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sup>9)</sup>

三國時代의 漢字音이 단일하지 않았음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高句麗, 百濟, 新羅의 言語가 단일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高句麗語와 新羅語는 서로 별개의 言語로서 그들의 차이는 方言의 限界를 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졸고:1995, 1997).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8) 譬況은 어떤 漢字의 發音을 다른 음과 비교하여 느리게, 또는 빠르게, 혹은 길게, 아니면 짧게 發音한다는 식의 설명 방법을 말하며 讀若도 “珣讀若宣”과 같이 비슷한 發音의 漢字로 다른 漢字音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直音의 방법은 “畢音必”과 같이 동일한 發音을 가진 漢字音을 대비시키는 방법이다.

9) 안병호(1984/33)에서는 “朝鮮에서 中國漢字를 차용하여 사용한 력사는 매우 오래 지만 漢字를 쓰자마자 오늘과 같은 단일한 朝鮮漢字音체계를 이룬 것은 아니다. 朝鮮漢字音단일체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정한 력사시기를 지나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朝鮮말 말소리체계에 漢字音이 복중되면서 자체의 특수한 朝鮮漢字音단일체계를 이루게 된다. (중략) 단일한 朝鮮漢字音체계의 성립이전시기 朝鮮漢字音이란 주로 세나라시기에 쓰인 漢字音을 말한다. 이 시기에 쓰인 漢字音들은 후세의 단일체계와 같지 않은 것이 많다”(띄어 쓰기, 철자법은 원문대로)라고 하여 三國時代의 漢字音은 단일하지 않았음을 역설하였다.

漢字音도 그것이 비록 同一한 漢字라 하더라도 그 發音은 서로 달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송기중(1995/452)에서는 “中國語 漢字音이 어떤 특정시대에 일시에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입된 漢字音이 모두 같은 中國방언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측할 수 없다. 相異한 地域에 國家가 樹立되어 6백년간 鼎立하였던 新羅·高句麗·百濟의 漢字音이 완전히 동일하였다고 추측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傳承된 朝鮮漢字音, 즉 東音의 音韻을 古代 韓國語의 연구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東音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統一新羅時代의 200년 간에 形成되었고 高麗初期에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10세기말에 확립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韓半島의 高句麗, 百濟, 新羅의 삼국은 新羅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新羅는 唐과 연합하여 文武王 元年(661)에 먼저 百濟를 멸망시켰는데 당시 蘇定方이 이끄는 唐의 군사 13만이 百濟를 정벌하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왔고 百濟가 망한 후에도 唐 高宗은 이 땅에 五都督府<sup>10)</sup>를 두고 軍政을 폈는데 이 때에 많은 唐의 通用語가 流行되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어서 羅唐 聯合軍은 高句麗마저 新羅 文武王 8년(668)에 滅亡시켰는데 이 때에 동원된 唐의 군사는 무려 50만이었으며 당은 高句麗를 정복한 다음에 평양에 安東都護府를 두고 당의 高句麗 征伐軍의 副長이었던 薛仁貴를 都護로 임명하였고 그 밑에 아홉의 都督府를 두었다. 百濟의 五都督府와 高句麗의 安東都護府 및 九都督府는 新羅의 抵抗을 받아 얼마 후 없어졌지만 그동안 唐의 軍政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때에도 많은 漢字音이 唐의 通用音으로 발음되었을 것임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中國은 국토가 廣闊하여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그 言語도 多種多岐하다. 그리하여 각 시대별로 각 민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言語가 필요하

10) 五都督府는 羅唐 聯合軍이 百濟를 멸망시킨 다음 그 땅에 설치한 통치기관으로 熊津, 馬韓, 東明, 金漣, 德安의 다섯 都督府가 있었다. 熊津都督府가 다른 네 都督府를 統轄하였는데 최초의 熊津都督은 唐人 王文度이었으며 新羅의 반발로 수년 후에 모두 없어지고 땅도 모두 新羅에 귀속되었다.

게 되었다. 周代에는 공동의 言語가 있었지만 이를 지칭하는 말이 없었으며 春秋時代에는 이를 ‘雅言’이라고 하였다. 戰國時代에는 六國이 모두 자기나라 말로 표준어를 삼았으나 周의 수도 洛陽의 言語를 기초로 한 雅言은 이 시대에도 上流社會에서 통용되었고 三經과 四書의 言語는 이 雅言으로 풀이되었다.<sup>11)</sup>

漢代에는 長安의 말을 기초로 한 共通語가 생겨나 ‘通語’, 또는 ‘凡通語’라고 하였으며 漢나라의 隆盛과 더불어 모든 방언을 초월하여 中國 전역에 퍼져나갔다. 또한 魏晉 이후 隋와 唐을 거치면서 長安을 중심으로 한 通語는 中國語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公用語로서의 地位를 누렸다. 특히 宋代에는 北宋이 中原에 定都한 후에 汴梁을 중심으로 한 中原 語音이 세력을 얻자 전시대의 漢音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韻書가 간행되었다. 특히 隋代에 陸法言의 『切韻』이 唐代 孫愐의 『唐韻』으로, 그리고 宋代 陳彭年과 邱雍의 『廣韻』으로 발전하여 中國語의 漢音은 韻書음으로서 정착하게 된다. 『廣韻』을 기본으로 한 『禮部韻略』 등은 당시 科擧試驗의 標準 韻書이였음으로 이 韻書音은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新羅는 唐과 聯合하여 百濟와 高句麗를 征服한 다음에 唐과의 관계가 더욱 緊密하여져서 盛唐의 문화가 물밀 듯이 들어왔다. 唐과의 交易이 활발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唐에 많은 留學生을 派遣하여 儒教와 仏教의 經典을 학습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新羅에 돌아와 교육에 힘쓰게 된다. 神文王 2년(682)에는 唐制를 모방한 国学을 설치하였는데 이 때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漢字와 漢文으로 이루어졌다. 元聖王 4년(788)에는 科擧制度에 준하는 讀書出身三品科를 제정하여 漢學의 성적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였다. 新羅에서 漢文을 통하여 唐의 言語를 배운 崔致遠은 唐나라에 가서 文名을 떨쳤

11) 이에 대하여는 金薰鎬(2000)에 자세히 언급되었다. 특히 『論語』 ‘述而’篇에 “子所雅言 詩書執禮皆雅言也—공자가 시경과 서경을 읽을 때, 예를 집행할 때에는 모두 雅言을 말하였다—”라는 구절과 『荀子』 ‘榮辱’篇에 “越人安越 楚人安楚 君子安雅—월나라 사람은 월나라 말을 잘 하고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 말을 잘 하니 군자는 아언을 잘 한다—”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이것은 統一新羅시대에 中國의 通語를 매우 열심히 교육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朝鮮漢字音이 中國의 中古音, 즉 隋·唐의 『切韻』系 韻書音을 기반으로 하여 統一新羅時代에 形成된 것으로 본다. 統一新羅의 漢文教育과 唐과의 밀접한 文化적 交流는 唐의 通語가 新羅에서 교육되었고 전술한 崔致遠 등의 例를 통하여 많은 新羅人이 이 通語의 漢字音에 익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은 이 發音을 기반으로 하여 新羅의 音韻에 맞추어 定着한 것이 오늘날 朝鮮 漢字音, 즉 東音의 源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中古音과 新羅語의 音韻體系는 서로 달랐으니 例를 들어 中古音에서는 語頭 子音으로 36聲母를 具備하였으나 新羅語는 語頭に 17子音밖에 許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新羅語는 語頭에서 舌音의 舌上音과 齒音의 正齒音이 齒頭音과 區別되지 못하였고 脣音의 輕重도 區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七音의 區別만이 아니라 全清, 次清, 全濁音의 區別도 명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牙音에서는 全清, 次清, 全濁音을 모두 합하여 ‘k(ㄱ)’으로 실현하고 不清不濁音만 ‘ng(ㅇ)’으로 區別하였다. 舌音의 경우도 같아서 不清不濁音만 ‘n(ㄴ)’, 나머지는 ‘t(ㄷ)’으로 실현하였을 뿐이다. 齒音의 경우에는 ‘ts(ㅈ), tsʰ(ㅊ), s(ㅅ)’을 區別하였고 脣音의 경우는 p(ㅍ), ph(ㅑ), 그리고 不清不濁音에 ‘m(ㅁ)’이 있었으며 喉音의 경우는 ‘h(ㅎ)’만 있었고 ‘影, 喻’母의 漢字는 모두 母音으로 실현하였다.

예를 각기 들씩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牙音	漢字	切韻音	高麗音	『鷄林類事』의 例. ( )은 15世紀 朝鮮語.
全清字	家	[ka]	[가, ka]	犬曰 家穉(가히)
	甘	[kām]	[감, kam]	塩曰 蘇甘(소곰)
次清字	区	[k'jiu]	[구, ku]	珠曰 区戍(구슬)

## 40 인문언어

	珂	[k'a]	[가, ka]	袴曰珂背(*ㄱᄃᄃ)
全濁字	畿	[g'ci]	[기, ki]	油曰畿(入声)林(기름)
	及	[g'iəp]	[깊, kip]	深曰及欣(김흔)
舌音				
全清字	答	[tap]	[답, tap]	八曰逸答(여덟)
	短	[tuan]	[단, tan]	七曰一短(닐곱)
次清字	恥	[t'i]	[티, ti]	雪下曰嫩恥 凡下皆曰恥(티-)
	天	[t'ien]	[턴, t'jən]	雷曰天動(턴동)
全濁字	突	[d'uət]	[돌, tul]	石曰突(툼)
	大	[d'ai]	[대, taj]	孟曰大耶(대야)
脣音				
全清字	把	[pa]	[과, pha]	工匠曰把指(바치)
	擺	[pai]	[과, pha]	腹曰擺(빅)
次清字	朴	[p'uk]	[박, pak]	飯曰朴拳(밥)
	批	[p'iei]	[비, pi]	蚤曰批勒(벼룩)
全濁字	皮	[b'jie]	[피, phi]	硯曰皮盧(벼로)
	弼	[b'iet]	[필, phil]	鴿曰弼陀里(비두리)
不清不濁字	麻	[ma]	[마, ma]	四十曰麻雨(마순)
	末	[muat]	[말, mal]	馬曰末(말)
齒音				
全清字	賽	[sai]	[새, saj]	雀曰賽(새)
	三	[sam]	[삼, sam]	麻曰三(삼)
全清字	作	[tsak]	[작, tsak]	尺曰作(장)
	祖	[tsuo]	[조, tsu]	齧曰密祖(며조)
次清字	慘	[ts'am]	[참, ts'am]	且曰阿慘(아참)
	寸	[ts'uən]	[촌, tsən]	婦曰丫寸(아참)
全濁字	慈	[dz'i]	[자, tsə]	妹曰丫慈(아스?)
	鮓	[dʒ'a]	[자, tsə]	松曰鮓子南(жат나모)
喉音				
全清字	漢	[xan]	[한, han]	白曰漢(흰)
	好	[xau]	[호, ho]	九曰鴉好(아홉)
全濁字	河	[ɣa]	[하, ha]	一曰河屯(*호든)
	轄	[ɣat]	[할, hal]	明日曰轄載(그제)

半舌半齒音

半舌字	來	[lai]	[래, rai]	胡桃曰渴來(그래)
	纜	[lam]	[람, ram]	風曰字纜(브름)
半齒字	兒	[ziē]	[아, a]	弟曰丫兒(아스)
	忍	[ziên]	[인, in]	四卜曰麻忍(마순)

\*은 재구음, ?은 미상.

切韻系 韻書音과 東音과의 차이는 이와 같은 聲母, 즉 語頭子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韓國語의 母音組織에 따라 切韻系 韻書音이 가진 重母音들이 單母音化되어 聲母에서만이 아니라 韻母에서도 적지 않은 差異가 露보된다.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자료를 거론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무튼 東音이 中古音을 기반으로 정착되었지만 고유어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상당한 변화를 입었음을 위의 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

統一新羅時代의 漢字音이 定着되매 따라 新羅人들은 이 漢字의 發音과 뜻을 빌려 新羅語를 그대로 表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즉 新羅人들이 漢文으로 自國의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新羅의 言語를 中國語로 번역하여 漢字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中國語, 즉 漢文에 능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漢字의 發音이 新羅語의 음운에 맞추어 정착되었고 또 그 뜻도 新羅語로 一対一 対応되면서 漢字를 빌어 新羅語를 그대로 기록하는 借字 表記가 가능하게 된다.

新羅 초기에 高句麗와 百濟로부터<sup>12)</sup> 借字 表記의 방법을 모방한 新羅는

12) 百濟에서 吏讀가 사용된 예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百濟에서는 吏讀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最近 忠南 夫餘의 陵山里 古墳群 옆에 있는 附屬 寺刹 陵寺址에서 발견된 木簡에 墨書된 所謂 ‘宿世歌’는 吏讀가 쓰여진 百濟의 發願文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가는 4言 4句로 되었으면 全文은 “宿世結業 同生一處 是非相問 上拜白來”인데 이 가운데 뒤의 두 句가 吏讀式 表記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 富山大學에서 2003년 7월 24~25일에 열린 ‘韓日 漢字漢文受容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서 金永旭 교수의 “百濟의 吏讀에 대하여”라는 발표를 참조할 것. 필자는 金完鎭·鄭光·張素媛(1997)에서 三國이 모두 吏

三國의 漢字音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독자적인 借字 表記의 방법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新羅 초기의 다양한 借字 表記法을 통일한 것은 強首와 薛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여 비로소 新羅의 借字 表記法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借字表記 체계의 형성은 이 시대에 朝鮮漢字音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정착된 것을 의미한다.<sup>13)</sup>

#### 4. 東音의 變遷

高麗가 建國하자 狀況은 조금 변한다. 먼저 韓半島에서 言語의 中心地가 半島의 東南部에 위치한 慶州 金城으로부터 한강 이북에 있는 開京으로 바뀌게 된다. 이 地域은 원래 高句麗의 故土로서 高麗는 全時代를 통하여 高句麗의 首都 西京, 즉 平壤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新羅의 首都였던 慶州, 東京의 세력간에 끊임없는 쟁투가 계속되었다. 言語에 있어서도 新羅系統의 南方系 言語(=韓系言語)와 漢江 以北의 高句麗 系統의 北方系 言語(=夫余系言語)가 角逐하였는데 후자는 被支配 階級の 言語로서, 전자는 支配階級の 言語로서 서로 衝突한 것이다.

漢字音의 경우에도 상황은 같았다. 高句麗 계통의 漢字音은 新羅系의 漢字音에 의하여 대부분 교체되었다. 일부 中國 上古音을 받아들였던 高句麗의 漢字音은 中古音에 기반을 둔 新羅系의 漢字音에 의하여 蝕食되었으며 新羅 景德王은 高句麗系의 漢字音으로 表記된 지명을 新羅系의 漢字音으로 交替하여 中國式으로 2字의 地名을 만들어 既存의 것을 交替하였는데 高麗의 金富植은 그의 『三國史記』에서<sup>14)</sup> 高句麗의 漢字音으로 만들어 사

讀式 借字表記를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13)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본 富山大學에서 2003년 7월 24~25일에 열린 ‘韓日漢字 漢文受容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서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이란 제목으로 主題講演을 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統一新羅時代에 비로소 漢字音이 정착되어 本格的인 新羅語의 借字表記가 가능하였음을 強調하였다.

14) 高麗시대에 編撰된 『三國史記』는 王命을 받은 金富軾이 高麗 仁宗 23년(1145)에 高句麗, 百濟, 新羅의 역사를 『史記』의 敘述方式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용하던 高句麗의 地名을 다음과 같이 表記하였다.

通溝顯本高句麗水入縣 『三國史記』(권35) 「雜志」 4, ‘地理’ 2.  
水入縣{一云買伊縣} 『三國史記』(권37) 「雜志」 6, ‘地理’ 4..

이 두 예에서 高句麗어의 ‘수(水)’는 ‘maj(買)’로 表記하였고 ‘입(入)’은 ‘i(伊)’로 表記하여 ‘물이 들어오는’ 고장의 이름을 漢文으로 ‘水入縣’이라고 쓰고 읽기는 해당되는 말을 高句麗 漢字音 ‘買伊縣’으로 表記한 것이다. ‘通溝縣’은 統一新羅時代의 景德王代에 漢文으로 바꾸어 新羅系 漢字로 지명을 삼은 것이다.<sup>15)</sup>

4.1 高麗시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中國語에서도 변화가 있어 唐이 망하고 宋이 建國하였으며 그에 따라 言語中心地가 唐의 長安에서 宋의 開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漢字의 開封音은 通語의 長安音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中國의 言語變遷에서 같은 中古音 系列에 속한다. 또 이 때의 宋代 開封音은 高麗의 漢字音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高麗 肅宗 6~7년(1102~3)에 高麗에 온 宋나라의 使臣 孫穆이 지은 『鷄林類事』의 高麗語 語彙들을 적은 漢字音이 오늘날의 朝鮮漢字音과 유사하다. 예를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大口漢捺	高麗語 / *hanel/	cf. 15C 朝鮮語 /하늘/	現代 朝鮮漢字音 漢[hən], 捺[nal]
雪口嫩	高麗語 / *nü:n/	cf. 15C 朝鮮語 /:눈/	現代 朝鮮漢字音 嫩[nun]
白口醞	高麗語 / *un/	cf. 15C 朝鮮語 /운/	現代 朝鮮漢字音 醞[on]
雲口屈林	高麗語 / *kürem/	cf. 15C 朝鮮語 /구름/	現代 朝鮮漢字音 屈[kul], 林[rim] <sup>16)</sup>

15) 같은 예를 “鴨溱以北逃城七 鉛城本乃勿忽(下略)”(『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 4)에서 찾을 수 있다. “鉛城本乃勿忽”의 ‘忽’이 高句麗에서 ‘城’을 의미하며 ‘鉛’의 高句麗語 訓이 ‘neimül(乃勿)’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6) 물론 『鷄林類事』 高麗言語의 表記에 동원된 漢字의 開封音은 朝鮮漢字音, 즉 東音과 매우 類似하며 오히려 『切韻』의 再構音과는 상당한 差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위의 각자에 대한 『切韻』의 재구음은 “漢[xən], 捺[nət], 嫩[nuən], 醞[uən],

이에 근거하여 東音이 高麗 初期에 形成되었음을 주장하는 見解도 없지 않다. 특히 高麗는 建国初에 많은 學校를 짓고 敎學에 힘썼으며 科擧制度를 실시하여 漢字와 漢文의 敎育을 크게 보급하였다. 특히 科擧制度를 처음으로 실시한 中國 歸化人 雙翼의 영향으로 東音이 그의 故郷 發音인 福建音으로 形成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朝鮮시대 世宗朝에 成三問이 申叔舟·孫壽山 등과 함께 王命을 받들 어 中國에서 온 사신 倪謙에게 漢字의 바른 음(正音)을 질문할 때에 우리 漢字音이 中國 福建의 發音과 유사함을 지적한 일이 있다. 『世宗實錄』에는 鄭麟趾가 明의 使臣 倪謙에게 우리 漢字音은 高麗에 歸化한 雙翼學士가 가르쳐 준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福建州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發音이 그 지방의 방언음과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中國 사신은 그렇다고 하고 漢字의 올바른 음을 보여주는 『洪武正韻』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기사가 있다.<sup>17)</sup>

아무튼 高麗前期에 宋과 긴밀했던 접촉으로 인하여 統一新羅에서 形成된 東音은 적지 않은 변화를 입었을 것이다. 특히 高麗와 密接한 교류가 있었던 中國의 東南部 지역의 발음이 高麗 漢字音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수정된 高麗의 漢字音은 科擧制度의 實施와 學校敎育의 發達로 高麗 全國에서 비교적 통일된 漢字音을 사용하게 되었다.

4.2 高麗後期에 中國에서 宋의 衰退와 元의 興隆은 高麗에서 中國의 公用語 學習에 대한 일대 革新을 가져온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元의 建国과 몽고의 中原 統一은 中國에서 言語中心地가 元의 首都 燕京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燕京, 지금의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中國의 北方語, 즉 漢兒言語(이하 漢語로 약칭함)는 遼, 金代에 이미 국가 공용어의 위치에 있었던 言

屈[kjuət], 林[ljəm]”이어서 현대의 東音은 물론 高麗語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開封音과도 全淸音과 次淸音의 混亂이 있고 四聲에서도 서로 어긋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것이다.

17) 本文을 옮겨보면 “(진략)鄭麟趾曰小邦遠在海外 欲質正音無師 可學本國之音 初學於雙翼學士 翼亦福建州人也 使臣曰福建之音正與此國同 良以此也(하략)”과 같다. 『世宗實錄』(권127) 世宗 32년 閏正月 戊申 조.

語로서 元의 중국 통일로 인하여 全中國의 公用語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文字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 발음은 종래의 中古音과 전혀 다르게 되어 高麗에서는 漢文과 中國語, 더 정확히 말하면 北京語는 전혀 별개의 언어가 되었다. 高麗후기에는 이러한 漢語의 教育이 元과의 교섭에서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漢語都監, 通文館(후일 司諫院으로 개칭함) 등을 설치하여 漢語 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sup>18)</sup> 그리고 漢字의 漢語音을 익히기 위하여 北方音을 反映한 많은 韻書들이 高麗에서 간행되기에 이른다.

中古音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東音은 中國의 宋代를 거쳐 元代에 이르러 형성된 近代音과는 매우 다르게 되었고 더욱이 明代에 정착된 北京官話音, 즉 近代音과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訓民正音의 創製는 실로 이와 같은 東音과 中國 漢字音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19)</sup>

癸亥年(1443) 겨울에 世宗이 新文字를 親製하고 나서 맨 처음 시도한 것이 韻會의 번역이었다.<sup>20)</sup> 이 ‘韻會’는 元代 黃公紹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古今韻會』, 또는 그의 弟子 熊忠이 지은 『古今韻會舉要』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韻書는 『蒙古字韻』, 또는 『蒙古韻略』과 같이 北方音의 영향을 받은 韻書로서<sup>21)</sup> 이미 高麗 末에 韓半島에서 중국어 교육과 한자음 학습에 널리

18) 이에 대하여는 졸저(1990)를 참조할 것.

19) 世宗의 訓民正音 制定 目的은 『訓民正音』 解例本の 御製序文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중략)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하략)”라고 표현되었다. 여기서 ‘國之語音’은 漢字의 東音을 말할 것이다.

20) 『世宗實錄』(卷102) 世宗 25年(1443) 12月條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중략) 是謂訓民正音”라는 기사에 의하여 세종 25년(癸亥) 12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세종실록』(권103) 세종 26년(1444) 2월 丙申(16일) 조에 “命集賢殿校理崔恒(중략) 指議事 以諺文識韻會 東宮與晉陽大君(玉柔)安平大君 裕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라는 기사에 의하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두 달이 못되어 『운회』를 번역하라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新文字가 창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文字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한 것이며 이보다 4일 후인 동년 2월 庚子(20일)에는 崔万理의 反對 上疏文이 제출되었다.

21) 現伝하는 『古今韻會舉要』에는 元 大德 元年(丁酉, 1297)에 쓴 熊忠의 自序가 至元 28年(壬辰, 1292)에 작성된 劉辰翁의 序文과 함께 실려있다. 이 책의 卷頭에는

알려졌으며 일찍이 조선 世宗 때에 慶州와 密陽에서 木版本으로 覆刻本이 간행되었다.<sup>22)</sup> 이 韻書を 새로 만든 문자로 翻譯한다는 것은 새로 등장한 中國의 표준어 北京官話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4.3 訓民正音이 發明된 다음 中國의 韻書音과 東音의 比較研究가 유행하였다. 新文字의 發明 이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韻會』, 즉 『古今韻會舉要』의 漢字音과 東音을 비교하여 이를 人爲的으로 교정한 『東國正韻』(1448)의 편찬이다. 이어서 中國語 학습에서 표준 發音을 정하기 위하여 明 太祖의 勅撰韻書인 『洪武正韻』을 한글로 번역하여 『洪武正韻訳訓』을 간행하였고 이를 축소하여 『四聲通攷』를 편찬하였다. 전자는 표준 漢字音을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明나라에서 人爲的으로 정한 標準音을 한

---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라는 제하에 ‘蒙古字韻音同’이란 소제를 붙이고 “韻書始於江左 本是吳音 今以七音韻母通攷韻字之序 惟以雅音求之無不諧叶”라고 하여 『古今韻會』가 어느 정도 北方音을 受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朝鮮 崔世珍의 『四聲通解』 卷頭に 附載된 26조 凡例 가운데 “(전략)黃公紹作韻會字音則亦依蒙韻(하략)”라고 하여 韻會가 元代 蒙古韻의 계통임을 증언하고 있다.

22) 이 때에 刊行된 初刊本の 30卷 10冊이 韓國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華山文庫에 現傳한다. 이 책의 所藏者는 世宗 때에 縣監을 지낸 成忠達의 孫子 成守琛이었는데 이 판본의 每卷 첫 장마다 ‘聽松居士’, ‘昌寧後學成守琛仲玉’이란 藏書印이 찍혀 있다. 成守琛(1493~1564)은 昌寧사람으로 字가 聽松, 字가 仲玉이며 大司憲을 지낸 成世純의 아들이다. 아마도 祖父인 成忠達이 購入하여 子孫에게 世襲된 것으로 보인다.

23) 현재까지 알려진 朝鮮版 『古今韻會舉要』는 朝鮮 世宗 16년(1434)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신인순(辛引孫)의 跋文에 이 책의 간행 경위가 자세히 설명되었다. 그것을 여기에 옮겨보면 “韻書之來尙矣 而諸家詳略各異 先儒在軒黃先生公紹禾卒(禾+卒)諸書作韻會 古今書字之音義 倫類無不備載 眞所謂浩乎山海之臟也 實韻書之大全 而學者之指南也 我朝右文興學 凡經史子集遺文秘書無不刊行 而唯此書未見鈔梓誠可嘆也 壬子冬臣承乏監司之任 慨然有意板刊而訪之 道內無有藏者 癸丑秋具辭以聞 特蒙允許仍賜經筵所藏二部以爲刊本 其所以崇重儒學之意至矣盡矣 臣卽分付于慶州密陽 閱五月而訖工務 欲廣布以惠無窮庶幾仰裨 盛朝興文之化之萬一云 宣德九年甲寅五月 日 慶尙道觀察黜陟使通政大夫兵曹左參議寶文閣直提學臣辛引孫拜手稽首敬跋”과 같다.



글로 伝写한 것이다.

그러나 『洪武正韻訳訓』이 단순한 『洪武正韻』의 發音 전사가 아니라 역시 中國의 여러 發音을 비교하여 正音과 俗音을 정하고 각 漢字의 正·俗音을 표시한 것은 漢字音의 비교연구라는 範疇에 들어갈 만하다. 이러한 中國 표준 漢字音의 연구는 16세기 朝鮮 中宗朝의 漢語學者 崔世珍에 의하여 계속된다. 그는 『四聲通攷』를 수정하여 『四聲通解』를 편찬하였으며 『老乞大』와 『朴通事』를 번역하여 漢字 하나하나에 그 正·俗音을 表記하였다. 이러한 發音 表記는 이미 崔世珍에 있어서는 漢語의 發音(=漢音)이 氣왕의 東音과 전혀 별개의 것임을 인식하였으며 東音이 韓國語임에 비하여 漢音은 中國語임을 전제한 것이다.

漢字의 東音과 中國 發音(=華音)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17·18세기에도 계속된다.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業績은 18세기에 활약한 朴性源의 『華東正音通積韻考』(1748)라고 할 수 있다. 그는 東音을 華音에 비교하여 그 음운의 특징을 究明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徐命膺·李德懋 등이 編撰한 『奎章全韻』(1792)에도 계속된다. 물론 이 시대에 『三韻聲彙』(1751), 『訓音宗編』(18세기) 등의 韻書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東音에 대한 연구이었다.

4.4 조선한자음은 후대에 韓國語의 음운 변천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면 고대한국어 단계에서 語末 舌內入聲音이 舌側音으로 外破되면서 ‘t → l’의 변화를 겪었다. 즉 “捺[nat] → [nal], 屈[k’juæt] → [kul], 孛[b’uat] → [pul], 突[d’uat] → [tol], 沒[muæt] → [mol], 末[mat] → [mal], 澆[p’uāt] → [pal], 活[xuāt] → [hwal], 割[kāt] → [hal], 不[puæt] → [pul], 抹[muāt] → [mal](앞 [ ]의 음은 切韻音을 로마자 표기한 것임)과 같이 東音에서 舌內入聲音이 [l]로 변하였다. 실제로 이 한자음을 이용하여 고려어를 표기한 것을 『鷄林類事』에서 찾을 수 있다.<sup>24)</sup>

고려어의 어말 [l]음은 고대한국어의 [t, d]로부터의 발달이어서 현대한국어의 [ㄹ]과는 발음 위치와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高麗語를 開封音의 漢字로 轉寫했던 宋의 孫穆은 이를 舌內入聲字로 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무튼 東音의 이러한 변화는 전혀 한국어의 음운 변화에 의거한 것으로 한자의 중국어음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天’의 한자음은 15세기 『訓蒙字會』 등에서는 ‘텨[tjæn]’이 있으나 18세기에 시작된 韓國語의 破擦音化에 의하여 ‘천[tʃjæn]’으로, 이것이 다시 口蓋音化하고 모음의 單母音化를 겪어 ‘첸[tʃæn]’으로 변화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舌音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端母의 ‘貂(都聊切)’는 『訓蒙字會』에서 ‘뉘[tieu]’이었으나 후대의 韻書에서는 ‘天[[tjæn] → [tʃæn]과 같은 변화를 거쳐 ‘초[tʃʰo]로 변화하였으며<sup>25)</sup> 透母의 汀(打丁切, tʰien) 및 鞞(同, tʰien), 梯(土雞切, tʰiei) 등도 같은 경로를 거쳐 汀, 鞞[정, tʃæn], 梯[제, tʃe]로 바뀌었다. 定母의 棧(特計切)와 甜(徒兼切)도 같은 과정으로 ‘체[tʃʰe]’, ‘침[tʃʰəm]’으로 바뀐다.

모음의 경우 19세기 韓國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중모음의 單母音化 현상에 따라 ‘大[taj]’가 [tæ:]로 ‘国[kwjk]’이 [kuk]으로 변화되었고 현대 韓國語에서 ‘華[hwa]’가 [ha]로 單母音化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뚜렷한 변화이어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天曰 漢捺	*haned	하늘[hanel]	雲曰 屈林	*küdüm	구름[kürüm]
風曰 孛纜	*padem	바람[parem]	石曰 突	*tud	돌[tulh]
水曰 沒	*mud	물[mwl]	馬曰 末	*med	말[mel]
足曰 澆	*pad	발[pal]	弓曰 活	*hual	활[hwal]
刀曰 割	*ʔad	칼[kalh]	被曰 泥不	*niböl	니블[nibul]
斗曰 抹	*mad	말[mal]			

25) 李敦柱(1990b/138)에 의하면 貂[뉘, tieu]가 [초, tʃʰo]로 바뀐 것은 ‘超(敕宵切)’에 類推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의 음운변화에 맞추어 한자음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朝鮮時代 漢字音의 正俗音

朝鮮 初期에 訓民正音이 발명되자 東音を 『古今韻會舉要』의 編韻에 맞추어 정리한 다음 이를 『東國正韻』으로 간행하였으나 이미 東音에 익숙한 일반 문자 사용자들을 모두 인위적인 한자음의 사용으로 改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世宗이 昇遐한 다음에 東音의 사용이 다시 활발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훈민정음으로 東音を 기록한 운서가 편찬되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世祖朝에 간행된 『初學字會』가 그 嚆矢로 보이나 이 책은 失傳되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조선 中宗朝에 崔世珍이 이를 모방하여 편찬한 『訓蒙字會』(1527)가 현재로서는 東音의 全貌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어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訓蒙字會』의 한자음 가운데 후대의 『華東正音通積韻考』(1747)과 『全韻玉篇』(1796) 등의 韻書에서 正音과 俗音을 併記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俗音의 등장은 조선시대에도 새로운 東音의 형성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고의 冒頭에 조선한자음, 즉 동음은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것이며 그 연원도 단일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뒷받침하는 예이기도 한다. 본節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찰하며 조선한자음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華東正音通積韻考』(이하 『華東韻考』로 약칭)의 卷頭に 실린 凡例에 俗音에 대하여 “我音訛誤 至於經書諺解 亦或有謬積者 而世人率以諺解歸重 不可以訛誤而置之 故並書俗音於頭註 以証參考”라 하여 이 책에 頭註에 俗音을 並書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敦柱(1990b)의 조사에 의하면 『華東韻考』에서는 모두 456자의 한자에 대하여 正音과 俗音을 併記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몇 개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華東韻考』에서는 “茶 차俗다”라 하여 ‘茶’는 [차, tʃa]이나 속음으로 [다, ta]가 있다고 하였다. 원래 ‘茶’는 『고금운회거요』에서 “茶, 茗也. 本作茶, 或作木茶, 今作茶”라 하여 ‘茶’가 ‘茶, 木茶’의 俗字임을 알 수 있는데 『廣韻』에서는 ‘宅加切’, ‘同都切’의 重音으로 표시되었다. 전자의

反切에 의하면 그 발음이 [다, da]임을 알 수 있으나 『訓蒙字會』에서는 그 훈이 ‘차’이고 『積譜詳節』(6卷 16葉)에 ‘茶飯’을 [차반, tʃʰaban]으로 표음하였으니 일찍부터 東音에서는 일찍이 ‘茶’가 [차, tsja, or tʃʰa]로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洪武正韻』에서 ‘茶, 茶, 木茶’가 ‘鋤加切’로서 ‘牀母’임으로 『洪武正韻訳訓』에서는 [짜, tsa]로 표음하였다.

『훈몽자회』를 편찬한 崔世珍은 당시 司訳院의 漢語教材인 『老乞大』와 『朴通事』를 翻譯하여 모든 漢字의 左右에 正音과 俗音を 訓民正音으로 표음하였다. 이 때의 翻譯凡例를 그의 『四聲通解』의 下卷 末尾에 부재하였는데<sup>26)</sup> 이 老朴凡例에 “通攷所用次清之音 而全濁初聲之呼亦似之 故今之反訳 全濁初聲皆用次清為初聲 旁加二點 以存濁音之呼勢 而明其為全濁之聲”이라 하여 漢音의 平聲全濁初聲이 國音의 上聲次清과 유사함으로 이번엔 『老朴』을 翻譯할 때에 平聲의 全濁音은 上聲의 次清音으로 바꿨음을 말하고 있다(拙著:2002/262). 여기서 『洪武正韻訳訓』의 ‘茶 짜’가 平聲全濁 初聲이므로 이것은 國音, 즉 朝鮮音에서 上聲의 次清音 즉 ‘차[tʃʰa]’로 발음이 바뀐 것이다.<sup>27)</sup> 따라서 ‘茶’의 俗音 ‘차[tʃʰa]’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발음이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를 『華東韻考』의 ‘槎, 차俗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正音이 ‘차[tʃʰa]’이고 俗音이 ‘사[sa]’임을 말하는데 이 字는 正齒音 2等의 牀母字로서 中國의 傳統 韻書에서는 [za, ㅈ]가 正音이다. 따라서 『東國正韻』에서는 平聲 全濁音의 ‘槎 ㅈ’로 표음하였으나 國音, 즉 朝鮮音에서는 위의 예와 같이 上聲 次清音 ‘차[tʃʰa]’로 발음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全韻玉篇』에서는 [차, tsʰa]를 正音으로 하였다.<sup>28)</sup> 그러나 전술한 老朴凡例의 ‘清濁聲勢之辯’에서 “全濁(中略)上去入三聲初呼之聲 逼同全清”이라 하여 漢音의 上, 去,

26) 이 凡例의 정식 명칭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로서 일반적으로 ‘老朴凡例’로 줄여 부른다.

27) ‘차’의 왼쪽 2점은 『훈민정음』의 방점법에 의하면 上聲을 표시한다. 無點이면 平聲, 1點이면 去聲을 표시한다.

28) 이돈주(1990/67)에서 『全韻玉篇』에서 ‘槎’의 正音을 차[tʃʰa]로 한 것은 ‘差(初牙切 [tʃʰa])’에 이끌린 때문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다르다.

入聲의 全濁音은 國音에서 全淸音이 되고 漢音 平聲은 國音 上聲의 발음과 같아짐을 밝혀놓았다. 이러한 한자음의 발음 경향에 따라 漢音 平聲 全濁音의 ‘榘 ㅈ[za]’를 國音, 즉 朝鮮音에서는 ‘사[sa:]’(上聲 全淸音)로 발음하게 되어 現代 朝鮮漢字音에서는 ‘사[sa:]’가 正音이 되었다.<sup>29)</sup>

崔世珍의 老朴凡例에서 整理된 바와 같이 朝鮮漢字音의 規則的인 變化는 중국어음을 갖고 들어온 漢字音을 한국어의 音韻體系에 맞추려는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朝鮮時代에 漢字音을 전공한 연구자들, 적어도 崔世珍과 朴性源 등은 漢音, 즉 한자의 中國語音과 東音과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대응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老朴凡例’ 등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선한자음에서 속음의 형성과 변천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종전처럼의 조선한자음을 중국 韻書音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만으로는 東音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 6. 結語

이상 韓半島에서 漢文과 漢字의 受容을 歷史的으로 檢討하고 朝鮮漢字音, 즉 東音의 成立과 變遷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韓半島에서는 적어도 西曆 紀元前 3世紀頃 衛滿朝鮮 시대부터 漢字가 漢文, 즉 中國語의 文語와 함께 流入되어 統治文字로서 사용되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三國時代에는 이미 漢文으로 自國의 歷史를 기록하고 漢文으로 번역하여 적기 어려운 人名, 地名, 官名 등의 固有名詞를 漢字의 音과 訓을 빌어 기록할 정도로 한자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漢字音은 三國이 각각 달랐던 것으로 그것은 輸入時期와

29) 漢音 平聲 全濁音의 ‘榘 ㅈ[za]’가 國音에서 上聲 全淸音 ‘사[sa:]’로 변하는 것은 ‘老朴凡例’에 “漢音平聲全濁及不清不濁之音 通效則無点 而聲勢國音上聲之呼 反譯則亦二点”이란 설명이 있어 漢音의 平聲 全濁音이 國音의 上聲을 發音하는 것과 같음을 증언하고 있다.

輸入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朝鮮漢字音이 정착된 것은 統一新羅로부터 高麗 初期에 이르는 약 200년 간에 걸친 시기이었으며 이 때에 중국의 中古音을 바탕으로 하여 東音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南宋의 開封音을 비롯하여 韓半島와 인접한 山東音 등의 方言音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특히 元·明 이후에 北京官話音이 계속해서 朝鮮漢字音에 유입되어 俗音이란 이름으로 東音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조선한자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東音이 변한 것이다. 그것은 東音이 어디까지나 한국어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어 음운의 변화에 맞추어 한자음도 함께 변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음의 변천은 한국어 音韻史에 의거하여 고찰되어야 하면 동음이 다른 중국어 방언으로부터, 또는 수입원의 시대적 차이에 의한 변화로만 이해하려는 종전의 연구 태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많은 聲韻學者들의 漢字音 研究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그 차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많은 研究業績을 내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인용문헌

- 姜吉云. 『國語史精說』, 서울: 蜚雪出版社, 1993.
- 姜信沆.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國語學』(韓國 國語學會) 第7号 (1978).
- \_\_\_\_\_.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0.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研究,” 『朝鮮學報』(일본 朝鮮學會), 31~35 (1964~65).
- \_\_\_\_\_. 『朝鮮漢字音의 研究』, 天理: 天理大學 出版部, 1968.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研究』, 天理: 天理時報社, 1968.
- 小林芳規·西村浩子. “韓國遺存의 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일본

- 訓点学会), 107輯 (2001).
- 小林芳規 “韓國의 角筆点と日本の古訓点との關係,” 『口訣研究』(口訣学会), 제8輯 (2002).
- \_\_\_\_\_.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号,” 『口訣研究』(口訣学会), 제10집 (2003).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 金完鎭 鄭光張素媛 『國語學史』.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97.
-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 香港: 太平書局, 1965.
- 南廣祐 『李朝漢字音의 研究』. 서울: 東亞出版社, 1973.
- 南豊鉉 “釈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國語國文學』(韓國 國語國文學會) 제100호 (1988).
- \_\_\_\_\_. “國語史 史料로서의 三國史記에 대한 檢討,” 『三國史記의 史料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93 人文科學 學術討論會, 서울(1993).
- \_\_\_\_\_.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서울: 太學社, 1999.
- 都守熙 “百濟前期의 言語에 대하여,” 『百濟研究』(충남대학교), 제13호 (1982).
- \_\_\_\_\_. “百濟 前期語와 伽倻語의 關係,” 『한글』(한글학회), 제187호 (1985).
-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 廣文書局, 1968.
- 劉 烈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朴炳采 “국어에서 차지하는 漢語의 위치에 대하여,” 『고대문화』, 제9집 (1968).
- \_\_\_\_\_. 『古代國語의 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 \_\_\_\_\_. 『洪武正韻譯訓의 新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3.
- 宋基中 “古代國語 漢字音에 관련된 몇 가지 관찰,” 『韓日語學論叢』(南鶴 李鍾徹 先生 回甲紀念論叢. 서울: 국학자료원 (1995).
- 有坂秀世 “漢字の朝鮮音について,” 『方言』(日本 方言学会), 第10号(4.5月号) (1936).
- \_\_\_\_\_. 『國語音韻史의 研究』. 東京, 1957.
- 石塚晴通 “漢字文化圈의 加點史から見た高麗口訣と日本語初期訓点資料,” 『口訣研究』(口訣学会), 제8輯 (2002).
- 安炳浩 『朝鮮漢字音體系의 研究』. 平壤: 金日成綜合大學出版社, 1984.
- 王 力 『漢語史稿』. 北京: 科學出版社, 1958.
- \_\_\_\_\_. 『漢語語音史』.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85.
- 俞昌均 『東國正韻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1966.
- \_\_\_\_\_. “『翻譯朴通事』의 中國音에 대한 考察,” 『嶺南大 論文集』(嶺南大學校), 第1

- 輯(1967).
- \_\_\_\_\_. 『蒙古韻略과 四聲通攷의 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75.
- 李基文. 『国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1961.
- 李敦柱. 『漢字學總論』. 서울: 博永社, 1979.
- \_\_\_\_\_. 『中國音韻學』. 서울: 一志社, B. Karlgren: Compe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1954)의 譯註, 1985.
- \_\_\_\_\_. “韻書의 反切과 国語漢字音의 乖離現象,” 『姜信沆教授 回甲紀念 国語學論文集』. 서울: 太學社 (1990a)
- \_\_\_\_\_. 『訓蒙字會漢字音研究』. 서울: 弘文閣, 1990b.
-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서울: 太學社, 1992.
- 李丞宰·安孝卿. “角筆 符号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研究』(韓國口訣學會), 제9집 (2002).
- 鄭然榮.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서울: 一潮閣, 1972.
- 鄭 光. 『朝鮮朝科試券研究』. 서울: 大東文化研究院(成均館大學校附設), 1990.
- \_\_\_\_\_. “韓國語 形成에서 高句麗語의 位置,” 『国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豐鉉先生 回甲 紀念 論叢). 서울: 太學社 (1995).
- \_\_\_\_\_. “韓民族의 두 先史文化와 韓國語의 系統,” 『二重言語學』(韓國二重言語學會), 第14号 (1997).
- \_\_\_\_\_. “韓半島における 漢字의 受容と 借字表記의 變遷,”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 國際學術會議” 主題講演, 2003년 7월 24-25일 日本 富山大學 人文學部, 日韓漢字·漢文受容研究會 主催 (2003a).
- \_\_\_\_\_. “朝鮮漢字音의 成立と 變遷,” 日本 中國語學會 제53회 全國大會 심포지움 “漢字音研究의 現在” 主題發表, 2003년 10月25日 日本 早稻田大學 大隈講堂 (2003b).
- \_\_\_\_\_. 『訳學書 研究』. 서울: J&C, 2002.
- 周法高. 『漢字古今音彙』. 香港: 香港 中文大學, 1973.
- 洪起文(1956): 『鄉歌解釋』. 平壤: 科學出版社, 1956.
- 藤本幸夫. “古代朝鮮의 言語と 文字文化,” 『ことばと文字』. 中央公論社. 東京 (1988).
- \_\_\_\_\_. “李朝訓讀攷,” 『朝鮮學報』(일본 朝鮮學會), 143호 (1992).
- Ishizuka Harumichi. “Devices for Reading Chinese Texts among the Neighbouring Peoples, *Proceedings of the XXXII International Congress for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Hamburg: Franz Steiner Vedrlag Stuttgart, Germany (1992).
- Kalrgren Bernhard.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64.

Ledyard Gary Keith.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of Oriental Languages in the Graduate Division of the Univ. of California, Berkely, 1966.

[Abstract]

### **The Formation and Alternation of Sino-Korean Pronunciation**

Kwang Chung  
(Korea University)

In most Asian areas Chinese writing and characters had been used as a unique recording device. The way to account for the circumstance related with the writing system could be twofold. Firstly the races inhabited around Sino-territory actually neither used the type of languages as Chinese - not isolating type but agglutinative one - nor established any independent writing letters. Secondly those people who belonged to the races accepted the writing system of China due to the frequent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change between them and Chinese people. In Korean peninsula the same situation of linguistic phenomenon had been pervasive. The aborigine of the territory who acquired to use Chinese writing applied their knowledge of the second language to record the fact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Bu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Chinese writing and native language showed the remarkable contrast; so, the people of the peninsula managed the specific letter system - in other words, the discrepancy between language and writing. This difference carried on the huge influence on the way of using Chinese

writing and characters in Korea. Some scholars of historical linguistics of Korean language considered the alternation of Chinese writing system and characters as “the procedure of nativization” - in which the inflow of characters into Korean and the same one continuously used in China illustrated the large gap of the phonological aspects. The method of reading Chinese characters came to be named as Sino-Korean Pronunciation. In the categor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pronunciation Sino-Korean Pronunciation was also categorized as the Eastern Pronunciation(東音). It indicates the sound of Chinese characters which has been historically adapted to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language. In this paper the main point is to survey the procedure of reception of Chinese writing and characters and that of establishment and alternation of Korean phonetic feature of Chinese writing and characters.

접 수 일 : 2005년 4월 18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